

## 現代社會에서의 大學教授의 役割



東亞大 總長 鄭 樹 鳳

### I

오늘날과 같이 産業化된 大衆社會에 있어서 巨大화된 大學에게는 傳統的인 大學의 理念은 이미 幻影이 되었으며, 「그것을 찬양하는 詩人도 없고, 그 포부를 말하는 豫言者도 없으며, 그 神聖함을 지키는 護衛兵도 없다. 있는 것은 批評家이며 비방자이며 背德者뿐이다」라고 C.카를 탄식하게 하였듯이 大學은 변모를 했다.

大學의 변모와 변화는 그 多樣化와 大衆化의 過程에서 많은 問題性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多樣化가 현저하다. 大學의 學科의 종류를 보면 學問的·社會的 要請에 따라 一面에서는 細分化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새로운 國際化나 綜合化도 시도되고 있다. 따라서 커리큘럼·敎職員 構成·管理組織에 이르기까지 大學은 組織的·機能的으로 극히 多樣化되고 있다. 여기에서 배우는 學生들을 보더라도 그 專攻에 相關한 것은 물론 學生層의 확대에 따라 그 자질·능력·관심도 대단히 多樣化되고 있다.

다음으로 오늘날의 大學이 大衆化라는 경향을 띠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大學이 大衆社會의 都市化 現象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都市의 大衆은 社會가 複雜化·專門化·分業化함에 따라 個人은 이제 개개의 人間으로서가 아니고 集團으로서 밖에는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없게 된다. 그 集團은 확실한 公同의 目的意識도 없이 충동적으로 움직인다. 이때 人間은 個人으로서가 아니고 無定形, 無限定的 群으로서 밖에 포착할 수 없게 된다. 이리하여 大學의 巨大化는 敎授와 學生을 大都市의 大衆과 本質的으로는 다르지 않은 존재로 물고 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大學이 求心力을 잃고 방황한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大學의 理念이나 機能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야스퍼스는 「大學이란 인류의 근본적인 知識欲이 集約되어 실현된 제도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大學의 本質을 知識의 제도라고 보는 근본 이념에서 있다. 즉 지식의 획득, 전달, 응용이라는 세 가지 機能과 그 相互關係가 大學의 세 가지 사명으로서 제도화한 것이 大學이라고 볼 수 있다.

지식의 획득은 연구이며, 전달은 교육이고, 응용은 사회봉사를 말한다. 지식의 세 가지 機能이 다이나믹한 相互關係에 의하여 무한히 발전하듯이 大學도 세 가지 使命의 有機的·力動的인 相互關係를 이룩함으로써 진전하게 발전할 수가 있다. 사회봉사의 면은 이때까지 소홀하게 여겨 왔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社會는 그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大學敎授의 役割에 대하여는 그것이 아주 진부한 문제 같지만, 오늘날 우리는 거기에서 새로운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다. 어떤 문제는 그것이 本質인 것이 아니니까 敎授는 그것을 무시해도 좋다고 간단히 처리할 수 없는 데서 그 의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다. 여기에서 大學의 근본 이념을 든 것은 그것 때문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근본 이념에서의 要講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 II

먼저 研究와 敎育에 관해서 고찰하기로 한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大學에서 研究와 敎育은 가장 기본적인 機能이다. 大學敎授는 研究者임과 동시에 敎育者이기도 한 것이다. 大學敎授는 研究를 극히 중시하고 존중한다. 만일 大學이 研究의 機能을 상실하면 그 存在理由를 잃게 된다.

大學敎授는 研究와 敎育의 관계를 깊이 생각함이 없이 훌륭한 研究者는 저절로 훌륭한 大學敎授가 된다고 하는 樂天的인 생각을 가지고, 研究와 敎育의 兩立 내지 一體化를 믿는 경우가 많다. 이리하여 大學敎授의 採用 및 昇進의 기준이 되는 것은, 연구 업적과 연구 능력이지 고등학교 교사 처럼 교사로서의 자격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研究와 敎育의 一致라는 豫定調和說은 확실히 고전적인 大學에서는 通用되었었다. 거기에서는 學問研究가 최고의 기능으로 되고 學生들도 소수의 엘리트였으며 稀少價値를 가진 學問과 學者에 대한 尊敬의 窓이 있었다. 學者로서 훌륭한 사람이면 존경받았으며, 말하자면 카리스마의인 敎育의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學問의 專門分化는 진척되지 않았으며, 研究는 手工業의이어서 소수의 學生이 徒弟의인 훈련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사정은 일변했다. 大衆化한 學生들은 大衆敎育이 불가피하게 되고 그들은 研究에 대한 존경도 의욕도 없다. 學問의 진보는 그 細分化·專門化를 초래하여, 學問은 敎育의으로 再編成하지 않으면 안 된다. 學問과 敎授에 대한 尊敬은 사라지고 不信이 일게 된다. 이런 시대에서는 훌륭한 研究者가 곧 훌륭한 敎育者라는 等式은 통용될 수가 없다.

오늘날의 學生이 敎授에게 요구하는 것은 강의의 평이함, 재미 있음이며, 學生과 함께 테크리에이션이나 서클에 참가하는 것이며, 그러한 요구에 잘 응하는 敎授는 훌륭한 평가를 받게 된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專門의인 연구 논문이나 學術의인 저술이 아니고, 요령 있게 쓴 교과서나 저널 리스틱한 논문을 쓰는 能力이 높고 평가되고 인기를 얻게 된다. 옛날의 敎授는 그 研究의 결과가 그대로 강의의 노트가 되고 그것을 敎室에서 읽는 것이 講義(lecture는 그 본뜻이 <읽기>)이다)였으며, 그것을 정리하여 출판하면 學問의인 저술이 되었었다.

옛날에는 大學敎授에게 話術이 요구되지 않았지만 요즘은 話術이 능하지 않은 敎授는 몹시를 당한다. 學生에 대한 迎合이 참된 敎育이 아니지만, 研究와 敎育의 牧歌的인 豫定調和가 오늘날에는 통용되지 않음은 사실이다.

오늘날 敎授는 研究者로서 學問에서 요구되는 役割과 敎育者로서 學生으로부터 요구되는 役割은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옛날에는 授業이 연구 결과의 발표의 場이었으며 최소한의 노력을 투입하면 되었던 부담이었으나, 오늘날은 授業은 물론 授業 이외의 시간까지 敎授에게 요구하고 있다. 오늘날의 敎授에게 研究 이외에 相談, 生活指導, 취직, 장학금, 아르바이트 등 많은 義務가 부과된다. 이러한 것을 소위 「雜務」로서 등한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研究者로서의 敎授에게는 義務가 아닐는지 모르나 敎育者로서의 敎授에게는 당연한 義務인 것이다.

더우기 學生數의 증대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學生과 敎授가 적어서 상호간의 人格關係가 存在하고 家父長制的인 共同體였던 옛날의 大學이 이제 巨大한 官僚制機構를 가지지 않고는 機能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學生은 학생번호로써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된다. 敎授는 이러한 非人格의 기구 속에서 人間의인 접촉에 의한 세미나제를 통하여 人格的인 敎育을 회부하여야 하거니와 이

와 동시에 官僚制의 教育機構의 要員으로서 役割도 수행해야 한다.

세째번의 使命으로서의 社會奉仕도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옛날에는 學問의 自由, 大學의 自治는 흔히 大學의 문을 社會에 대하여 닫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知識의 府로서의 大學에 社會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그 研究能力에 기대하는 기초연구, 개발연구를 통하여 이른바 産學共同研究를 필요로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教授의 지적 능력은 전문가, 지식인, 문화인으로서 정부, 산업, 저널리즘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수요가 크다. 사회의 情報化에 따라 학문의 商品價値도 市場性도 높아지고 大學인의 지식은 예리한 專門型, 넓은 社會啓蒙型 등 여러 가지로 活用되고 있다. 생각컨대 研究者로서의 教授가 學生을 상대로 하는 教育도 學問의 보급 전달에 있고 理性的良心의 形成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大學의 배두리를 벗은 社會奉仕와 같은 教育活動도 本質的으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 III

현대의 學問의 특징은 機能的으로는 學問과 社會와의 關係가 긴밀해진 것이다. 情報化社會, 知識産業社會라고 불리는 現代社會와 隔離하여 大學이 「象牙塔」 속에 고립할 수가 없게 되었다. 고도의 科學技術을 터득한 사람이 많이 요구되면 될수록 大學은 확장하여 教授도 學生도 大衆化된 분위기와 문화가 침입하여, 이런 면에서도 大學과 社會나 現實과의 관계는 긴밀하게 된다. 學問의 社會的인 機能이나 실제적인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學問自體는 하나의 商品價値, 市場價値를 갖게 된다. 特許·發明·設計·著作 등에서 보듯이 學問이 때론 큰 利潤을 초래할 수가 있다.

머튼에 의하면 科學의 에토스(ethos)의 하나는 沒利性이며 眞理 이외의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科學이 世俗的인 利潤을 가져옴에 따라 科學의 自己目的性은 잃게 된다. 大衆社會 狀況에서 學問에의 수요가 늘고 더우기 大量生産, 大量消費라는 市場的 메카니즘이 작용하여 學問을 大衆的 商品으로 생각하는 學者가 나타나게 된다. 그는 專門家를 상대로 하지 않고 大衆을 상대로 한다. 고도의 學問을 쉽고 재미 있게 요약·해설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教授는 學問研究는 새로운 科學的 眞理를 發見하고 창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존의 科學的 成果의 정리 요약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이 쓴 책이나 논문을 읽고 이해하며 정리하는 것이 연구의 전부라고 착각하게 된다. 여기에 問題가 있다.

그런가 하면 한편 學問의 발달이 빨라 學者의 數 및 發表物의 數가 10년 내지 15년에 배로 늘어나는 것이 현대의 상황이라 한다면, 研究者가 자기의 專門分野에 관한 논문을 모두 읽는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하나로서 머튼이 말하는 「인사 이더리즘」이란 現象이 지적된다. 어떤 思想을 신봉하는 사람은 같은 경향의 서적만 읽고, 같은 思想을 가진 사람만 사귄다. 그들은 同志가 되고 同志만을 學界에 받아들인다. 커뮤니케이션과 信賴關係는 오직 인사이더에게만 한정되게 된다. 여기에서 研究者 사이의 對立이 격화된다.

우리는 오늘날 大學의 機能이 肥大化하고 따라서 教授의 役割도 많이 증가했다고 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의 社會는 「學習社會」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거기에서는 學習의 기회는 사람들의 人生全體에 퍼질 것이며, 더욱더 다양한 기관 사이에 分散될 것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새로운 知識과 고도의 專門的인 人材의 育成을 위하여 그 質的인 重要性은 더욱 더해 갈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대학은 이러한 많은 문제를 앞에 놓고 袖手傍觀할 수는 없다. 우리가 겪은 試練은 컸지만 그만큼 成果도 많았다. 우리 大學教授들은 결코 小成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前進와 創造의 時代를 몸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플라톤은 일찌기 「教育이라는 수레바퀴는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더욱 속도를 더한다」고 했는데, 그 推進力은 教育者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다. \*